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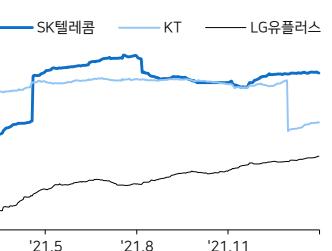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2.5	0.5	-5.7	-9.4	10.7	10.7	1.1	1.1	1.8	1.8	
통신업종	-1.6	-1.3	0.0	-3.5	8.2	8.2	0.6	0.6	5.6	5.6	
SK텔레콤	-2.0	-2.9	0.9	8.5	5.4	9.4	0.6	0.6	5.8	5.9	
KT	-1.2	2.9	1.8	-2.2	7.8	7.4	0.6	0.5	5.2	5.8	
LG유플러스	-1.1	3.5	-4.7	-6.1	7.8	7.4	0.7	0.7	4.3	5.0	
AT&T	0.6	-0.9	-1.1	-13.4	7.1	7.9	1.0	1.0	8.7	8.1	
Verizon	1.0	5.7	5.8	-3.0	10.0	9.9	2.8	2.4	4.7	4.8	
T-Mobile	0.7	18.3	7.2	-9.3	54.8	49.9	2.3	2.1	0.0	0.0	
NTT	-0.9	2.2	3.5	15.9	13.2	10.4	1.5	1.5	3.2	3.4	
KDDI	-2.4	3.4	10.8	12.3	13.3	12.8	1.9	1.7	3.2	3.3	
Softbank	-0.9	8.0	-24.4	-15.7	2.3	10.1	1.2	0.8	0.8	0.8	
China Mobile	-3.0	1.0	15.7	8.3	8.0	7.6	0.8	0.7	7.0	7.6	
China Unicom	-3.0	1.7	8.0	-2.5	7.1	6.5	0.3	0.3	7.3	8.6	
China Telecom	-0.3	3.4	16.4	9.3	8.4	8.1	0.5	0.5	7.0	8.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0% (-0.1%p WoW, +0.1%p MoM)

KT 39.6% (+0.1%p WoW, -4.6%p MoM)

LGU+ 36.0% (+0.2%p WoW, +0.6%p MoM)

KT,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통신 동향

2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9%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불안한 증시 속 통신주는 외국인 지분을 상승세로 방어주 역할을 담당 23일(수) 과기정통부 5G 3.7GHz 이상 대역 할당을 위한 주파수 연구반 킥오프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28일(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2에 통신3사가 참가할 예정 통신3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성과를 공유할 전망 KT는 배당매력 및 우호적 수급 환경으로 인해 긍정적인 주가 흐름 지속 전망 5G 섹터는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는 올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회복 예상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0	21	22	23	24	25	26
			주파수 연구반 킥오프			

27	28	1	2	3	4	5
	MWC 2022 통신 3사 참가					

3 주간 뉴스

▶ SKT-삼성전자, 속도·품질 높인 5G 단독모드 공개

(동아일보)

-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22에서 5G 단독모드(SA) 기술을 공개
- 이번에 선보인 5G 옵션4는 5G-4G NE-DC(New Radio E-UTRAN Dual Connectivity) 기술
- 5G 코어가 기지국 장비만을 이용하는 단독모드 기술인 옵션2에서 한 단계 진화한 방식
- ⇒ 이번 기술은 NSA 대비 속도 저하가 없고 서비스나 상황에 맞게 5G 단독 또는 LTE와 합쳐 사용 가능
- ⇒ 기존 5G 옵션 2는 다수 통신사가 기준에 확보한 LTE 주파수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

▶ 미국, 연내 3G 통신 서비스 중단한다

(ZD Net Korea)

- 미국 통신 3사 중 AT&T는 22일, T모바일은 내달 31일, Verizon은 12월 31일 3G 서비스 종료 예고
- 미국의 3G 가입자 수는 수십만 명, 2015년 이전에 출시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 지난해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종료
- ⇒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국가와 달리 미국은 약 20년을 끌어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상황
- ⇒ 휴대폰보다 사용주기가 긴 자동차의 겨우 일부 차량이 3G 통신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혼란 예상

▶ LG유플러스, 부산대에 5G 스마트캠퍼스 조성

(조선비즈)

- LG유플러스, 부산/양산/밀양/아미 등 부산대 4개 캠퍼스를 5G 이동통신 스마트캠퍼스로 조성
- 현재 LG유플러스는 부산대에 차세대 유 · 무선 네트워크 환경 등 ICT 인프라 구축을 원료한 상황
- 향후 5년 동안 5G ·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교육 모델 실증을 진행할 계획
- ⇒ 현재 LG유플러스는 2025년까지 비통신 분야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 이 중 핵심은 LG전자, LG화학, LG CNS 등과 협업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될 전망

▶ 5G 특화망 초기 시장 형성에 480억원 투입, 2022년 5G+전략위 개최

(전자신문)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 실증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에 480억원을 투입
- 또한 구체적 역할을 할 '이음5G 얼라이언스'를 결성, 중소기업의 이음 5G 공급역량 강화도 지원
- 전파법 시행령, 고시 등 개정을 통해 이음 5G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 올해 5G+전략은 기존 5G 융합서비스 고도화와 새롭게 출범한 이음5G 초기시장 확대에 초점
- ⇒ 5G 산업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5G 융합생태계 활성화 정책도 올해 중요한 추진 목표

▶ KT, 배달 중개 플랫폼 푸드테크와 소상공인 서비스 맞손

(뉴스1)

- KT, 푸드테크와 소상공인 신규 서비스 공동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푸드테크는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 약 200여개 주요 배달 프랜차이즈에 솔루션을 공급 중
- 이번 협약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할 계획
- ⇒ KT는 현재 고객군을 B2C에서 정부/대기업/증권업계/소상공인/글로벌 기업으로 확대 중
- ⇒ 통신은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창출로 ARPU는 기존 ARPU 대비 2배 이상 상승할 전망

▶ 아우디, 2024년부터 5G 차 출시한다

(ZD Net Korea)

- 아우디, 2024년부터 버라이즌의 5G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커넥티드카를 출시할 계획
- 5G 서비스는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될 전망. 현재 4G 커넥티드카의 구독료는 연간 849억 달러
- 3D 매핑 기술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능 등 추가 예정
- ⇒ 지난해 미국 운전자의 약 60%가 커넥티드카를 이용,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
- ⇒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연평균 36.8% 성장, 작년 5월 기준 424만대 돌파(비중 17.3%)

4 주요 지표

(집약 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53,900	9.8	15.0	15.3	1.3	1.5	1.2	1.3	4.6	4.5	4.2	4.3	9.5	7.8
	KT	31,700	6.9	20.5	21.2	1.3	1.4	0.9	0.9	4.3	4.5	3.0	2.9	7.4	7.3
	LG유플러스	13,150	4.8	12.0	12.5	0.9	1.0	0.7	0.7	2.9	3.0	3.6	3.5	9.8	9.7
미국	AT&T	23.9	170.8	150.3	147.8	29.0	30.4	20.4	20.9	51.9	48.7	6.7	7.1	13.5	11.9
	Verizon	54.1	227.2	135.7	138.0	32.9	33.9	22.7	23.3	48.4	49.7	7.7	7.5	30.1	25.8
	T-Mobile	125.5	156.7	82.0	84.2	8.0	13.0	3.3	7.4	26.6	27.1	8.4	8.3	4.4	4.9
일본	NTT	3,260	102.2	105.3	106.7	15.4	15.9	9.9	10.2	29.0	28.6	6.4	6.2	10.8	14.7
	KDDI	3,691	73.6	47.1	47.5	9.2	9.4	5.8	6.0	16.3	15.9	5.8	5.6	14.5	13.8
	Softbank	5,069	75.6	52.9	54.5	5.6	11.1	9.5	8.9	50.0	16.5	4.9	14.2	39.3	9.4
중국	China Mobile	53.2	148.9	133.4	141.4	18.8	20.2	18.1	19.5	48.8	51.0	1.7	1.6	9.7	9.9
	China Unicom	4.2	16.4	51.3	54.2	2.0	2.3	2.3	2.6	15.3	15.9	0.9	0.9	4.5	5.0
	China Telecom	3.0	56.2	68.5	73.4	5.1	5.5	4.0	4.3	20.0	21.1	2.6	2.4	6.5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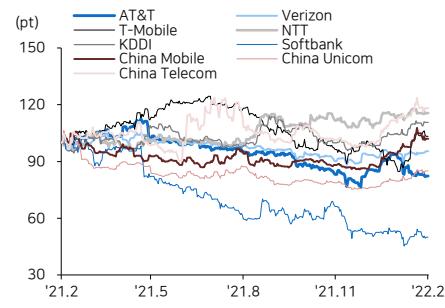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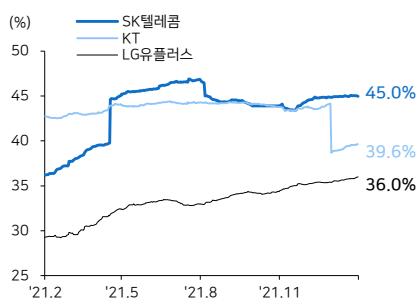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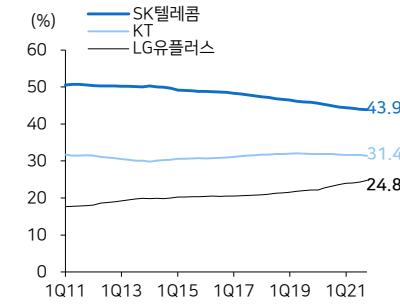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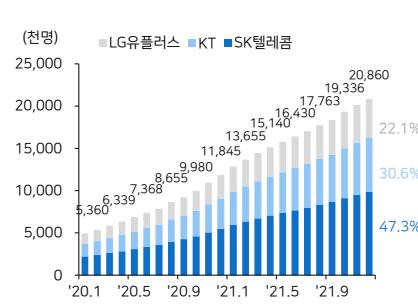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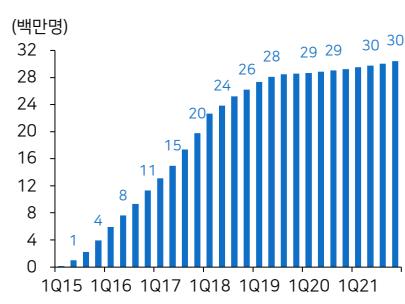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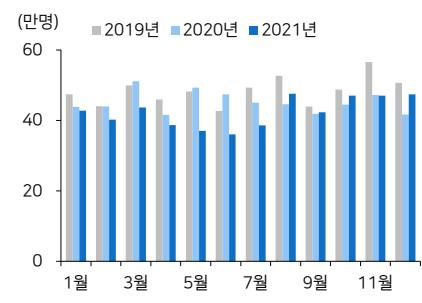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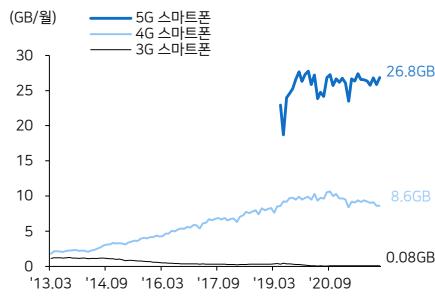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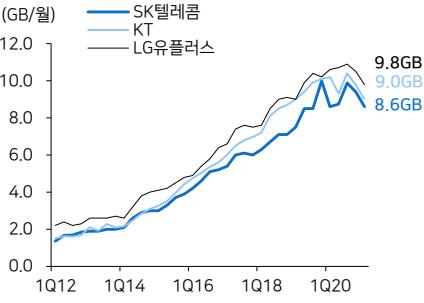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